

합평군, 국가기록관리 정부포상... '군 단위 유일'

서고관리시스템 도입 등 업무개선 노력 인정 "지역공동체 역사 전부 적극 유지·활용 할 것"

합평군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2020 국가기록관리 포상'에서 군(郡) 단위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정부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28일 합평군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기록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해 공로가 인정된 각 단체나 개인 등에게 포상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

4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등 기록관리 업무 기반 ▲기록물 이관 등 업무추진 ▲서비스 및 업무개선 등 3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합평군은 이번 평가에서 그동안 군이 추진했던 서고관리시스템 도입, 원스톱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지속적인 업무개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정적인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해

행정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록관 운영기록 관리, 비대면 교육 공간 마련 등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공로도 인정받았다.

특히 각종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합평군기록관 건립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과 운영 전문화를 위한 기록연구사 등의 전담인력을 채용한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상의 합평군은 "신속된 합평군 기록관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공공 기록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역사 전부를 잘 보존하고 적극적으로 유지·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합평군 기록물 총괄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공식 개관한 합평군기록관은 군청 인근 (구)합평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지에 연면적 589.66㎡, 지상 2층 규모

로 건립됐으며 향운·향습 공기순환 시설, 가스식 자동 소화 시설 등의 최신식 보존 시스템이 설치됐다.

합평=김광춘 기자

목포시,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발굴조사 끝

목포시가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발굴조사를 마치고 관광자원화를 추진한다.

목포세관 본관 터(국가등록문화재 제768호)는 우리나라 최초 자주개항의 위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자 근대화의 상징으로 시는 지난 8월부터 본관 터 발굴 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구 목포세관 본관 터에서는 목포세관 구청사, 목포세관 신청사, 국가정보원 목포출장소 일부 등 3개의 건물시설이 확인됐다.

구 목포세관 본관 터의 건물 기초는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했으며 일부 화강암 외벽제를 포함한 건물 내부 바닥재 사용에 관련된 깃돌과 적벽돌 경계기초, 잠석채움까지 거의 완벽한 상태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를 통해 구 목포세관 본관 터와 현재 알려진 목포세관 평면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배수관 관련 토관(土管)과 암거시설(暗渠施設, 지하에 매설한 인공수로), 석렬(石列) 등이 확인되어 근대 건축물의 축조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됐다.

시는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노출 전시를 통해 목포시민과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후면에 위치한 구 세관창고를 보수정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인근 목포근대역사공간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구 목포세관 본관 터를 통해 근대기 목포의 역사적 위상 제고 및 대국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침체된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세관은 1897년 10월 1일 목포 개항과 동시에 해관(海關)이라는 명칭으로 관세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907년 세관(稅關)으로 개칭된 뒤 1908년 목포전에서 현재 위치(향동 6-33)로 옮겨왔다.

목포=박정수 기자

신안젓갈타운에 향토식당·카페 오픈 "겨울, 바다와 하늘을 품은 최고의 힐링 명소가 될 것"



신안군은 23일 언택트 코로나시대에 맞춰 지도읍에 있는 신안젓갈타운에 풍경 좋은 카페와 특산물인 젓갈을 소재로 한 향토음식 전문식당을 개장하였다.

카페와 향토음식 전문식당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힐링의 장을 제공하고 아울러 젓갈타운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고자 추진하였다.

기동취재본부

이 사업은 2013년 젓갈타운 준공 후 활용하지 않던 홍보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1층은 향토음식 전문식당, 2층은 카페로 운영하고자 추진한 신안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 시설은 신안군에서 리모델링하고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집기는 운영자가 시설하도록 하여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이날 개장식을 가졌다.

박우량군수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온 기회를 딛고, 심신이 지친 관광객에게 힐링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자"며 개장을 축하하였다.

신안젓갈타운은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에 105억원을 투자, 2013년 준공하였으며 20개의 젓갈 판매점과 저장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년중 신안에서 생산되는 새우젓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무안군, 지역 맞춤형 농기계 임대 '호응'

고령화 인한 일손 부족 해결

무안군은 농촌 지역의 인력부족과 농업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영농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경영부담 등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역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1일 농기계 임대료 100%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7,536농가에 9,633건의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주어 농업인에게 2억 9800만원의 도움을 주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해체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해체분소는 농협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설 노후로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군에서는 사업비 20억 원(국비 8억 포함)을 투입하여 농기계 보관창고와 사무실, 교육장 등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여 원스톱 농기계 임대·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발작물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홍석봉 영광부군수, AI 방역 현장 직접 챙겨

상황 점검·근무자 격려

영광군은 전국 6개도 30여 농가에서, 특히 인근 지역인 고흥군과 장성군 오리 농가와 합평군 고막원천 야생조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홍석봉 영광부군수는 지난 2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시설 전국일시이동중지가 발령됨에 따라, 가금농가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자 입구 통제소소를 직접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날 현장에서 홍석봉 부군수는 가



금농가를 만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청정영광을 사수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하며 AI 예방을 위해 가금농가의 철저한 방역 의식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영암군, 국도비 1880억원 확보 전년 대비 320억 증가

영암군은 2021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1,880억원을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군은 '하나된 국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지역의 현안사업과 군의 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 그리고 공약사업 등 해결

을 위해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전라남도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광복 행보를 펼친 결과 1,880억원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320억원(20%)이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2022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영암형 뉴딜사업, 신규사업

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중앙부처, 국회, 전라남도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가스 공급사업(127억원)이 금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추진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스카우터 한수원

